

## 《馬氏文通·狀字章》 분석

鄭 仁 淑\*

〈目 次〉

I. 서론	IV. 狀字諸式
II. 狀字定義	V. 狀字收字
III. 狀字假借	VI. 결론

### I. 서론

《馬氏文通》<sup>1)</sup>(이하 약칭《文通》)의 <狀字章>은 도합 4절로 구성되어 있다. 즉 “狀字諸用”·“狀字假借”·“狀字諸式”·“狀字別義”가 바로 그것이다. 각 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狀字諸用”節: 狀字定義를 서술하고, 狀字의 中心語를 종류별로 서술했다.

\* 본 연구는 2004년도 경북대학교 연구교수 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과 교수.

1) 원래 이름은 《文通》이고, 도합 十卷이며, 上海商務印書館에서 출판되었다. 작자에 있어서는, 清末의 “馬建忠”설이 가장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제작자는 “馬相伯(마건중의 말형, 환속신부)”이라는 설(朱星 <馬氏文通的作者究竟是誰>[《馬氏文通研究資料》, 中華書局] 참조)도 있고, “馬建忠과 馬相伯의 合作”설(林玉山 <對馬氏文通的幾點看法>[상계서] 참조)도 있다. 출판년도에 있어서는 嚴修《二十世紀的古漢語研究》(書海出版社, 19 쪽)는 前六卷이 光緒二十四年孟冬(서기 1898년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에 출판되었고, 後四卷이 光緒二十五年季冬(서기 1900년 1월)에 출판되었다고 서술했다. 《中國歷代語言學家》(上海文化出版社, 389-390쪽)에서 高天如는 前六卷이 1898년에 초판되었고, 後四卷이 1899년에 초판되었다고 서술했다.

“狀字假借”節: 名字·靜字·動字에서 가져된 狀字를 서술했다

“狀字諸式”節: 狀字의 형태를 분석했다.

“狀字別義”節: 의미에 의거하여 狀字를 분류했다.

《文通》은 字類를 먼저 實字·虛字 2大類로 나누고, 다시 實字3類(名字·代字·動字·靜字·狀字)와 虛字4類(介字·連字·助字·嘆字)로 나누었다. 《文通》의 字類名稱에서 “實字·虛字·動字·靜字·助字” 등은, 비록 함의가 다르긴 하지만 앞시대의 것을 계승한 것이다. 예를 들면, “實字·虛字”는 南宋 周輝의 《清波雜誌》에 이미 출현하고, “動字·靜字”라는 명칭은 清代 王筠의 《說文句讀》에 이미 출현하고, “助字”는 清代 劉淇의 《助字辨略》에 출현한다. 그러나 “狀字”라는 명칭은 앞시대에 출현하지 않는다.

劉復은 《中國文法通論》(中華書局, IV 쪽)에서 “馬建忠은 라틴어를 따라 《文通》을 지었다.”고 단정하였고, 高名凱는 《漢語語法論》(科學出版社, 49쪽)에서 “마진중의 결점은 바로 라틴어 어법의 詞類에 근거하여 漢語의 詞를 약간의 종류로 나누고, 연구의 중점을 사류문제에 두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라틴어에서 품사는 우선 2大類로 구분된다. 즉 名詞·代詞·數詞·形容詞·動詞 등은 어법관계에 따라 詞尾가 변화하는 “變化品詞”에 속하며, 副詞·介詞·連詞·感嘆詞·語氣詞 등은 어법관계에 따라 詞尾가 변화하지는 않는 “不變化品詞”에 속한다. 오직 本用(述語의 수식기능)의 狀字에만 한정시킨다면, 《文通》의 狀字는 라틴어의 “adverbium(漢譯: 形狀詞 또는 副詞)”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文通》이 만약 단순히 기계적으로 라틴어법체계를 모방했다면, 實字는 라틴어의 변화품사에 대응시키며, 虛字는 불변화품사에 대응시키고 나아가 “狀字”를 “虛字”에 귀속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文通》은 라틴어와 같은 詞尾變化가 존재하지 않는 漢語의 특성을 고려해서 해석가능한 의미의 존재여부에 의거하여 實字와 虛字란 2大類로 분류하고, 나아가 “狀字原以肖動靜之貌, 與靜字無別. 古人於靜字狀字, 統以靜字名之<sup>2)</sup>(狀字는 원래 動境·靜境의 모

양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니, 靜字와 구별이 없다. 옛사람은 靜字와 狀字에 대해 모두 靜字로써 호칭했다.”라고 서술하고 “狀字”를 虛字에 귀속시키지 않고 오히려 “靜字”와 함께 實字에 귀속시켰다. 《文通》의 이러한 분류는 중국의 전통적 관점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현대어법학의 관점에서 볼 때, 《문통》의 “狀字”는 副詞·形容詞·動詞·名詞·代詞 등을 포함하고<sup>3)</sup> 심지어 詞組까지도 포함하며, 또 修飾기능뿐만 아니라 表詞기능과 止詞기능까지도 담당하고 있는 등등의 문제로 인하여, 명쾌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은 <狀字章>의 狀字定義·狀字假借·狀字諸式·狀字收字 등을 분석함으로써 《文通》의 “狀字”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 쓰인 《馬氏文通》의 저본은 《馬氏文通讀本》(呂叔湘·王海棻 上海教育出版社, 2000年 2月 第1版)이다.

## II. 狀字定義

<狀字章·狀字諸用節>(380쪽)에 보이는 狀字定義는 다음과 같다.

- a. 狀字, 所以貌<sup>4)</sup>動靜之容者. 狀字之於動字, 亦猶靜字之於名字, 皆所以肖貌之者也. 凡狀者, 必先其所狀, 常例也.(狀字는 動靜[動境·靜境]의 모양을 묘사하는 것이다. 狀字가 動字에 대한 것은, 靜字가 名字에 대한 것과 같으며, 모두가 모양을 묘사하는 것이다. 무릇 狀者 수식하는 것 즉 수식기능을 행하는 것]는, 반드시 그것이 수식하는 대상보다 앞서는 것이

2) 《馬氏文通讀本》477-478쪽.

3) 楊樹達 《馬氏文通刊誤》·蔣文野(1997)·韓荔華(1999)·胡慧君(2004) 참조.

4) “所以貌動靜之容者” 속의 “貌”은, 독음이 “末各切(막)”이고, “描繪(묘사하다)”란 의미이고(《漢語大詞典》참조), 전체 문구는 본용적 狀字의 의미성질을 겨냥한 말이다. 뒤에 출현하는 “皆所以肖貌之者也” 속의 “貌”에 대해서는, 《文通要例》(141쪽)가 “都是用他畫象貌的(모두가 그것으로써 모양을 그리는 것이다)”라고 해설한 것을 참고하면, 이 문구 속의 “貌”는 독음이 “모”이고, “모양”이라는 의미이다.

일반규칙이다.)

위에 보인 狀字定義에서, 우리는 원문 중에 밑줄친 “動靜” “狀者”의 의미를 상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動靜”의 의미에 있어서, 郝光順(1988)·張俠(1989) 등은 “動字·靜字”로 이해했고, 蔣文野(1997)는 “動作·狀態”로 이해했다. 이러한 두 종류의 견해는 편파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견해들에 의거하면 아래 b에 보이는 경우들은 “動靜”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이다.

- b. 《文通·狀字章》(382쪽): 不惟此也, 名字, 代字, 頓也, 讀也, 皆爲狀焉 (이러할 뿐만 아니라, 名字, 代字, 頓, 讀도 모두 [狀字에 의해] 수식된다.)……狀名字.(名字를 수식한다.)……《左傳·定公十年》夏, 公會齊侯于祝其, 實夾谷.(여름에 정공이 제나라 임금과 촉기에서 회합했는데, 바로 지금의 협곡에서였다.)---‘夾谷’地名也, ‘實’字狀之.(夾谷’은 지명이고, ‘實’자는 그것을 수식한다.)

다시 말해, “動靜”의 의미를 “動字·靜字”나 “動作·狀態”로만 이해하게 되면, 狀字 뒤에 출현하는 名字나 名字성질을 지니는 것들은 “動靜”에 포함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문통》에서 “動靜”이란 말이 사용된 경우들을 보면 아래와 같다

- c. <正名章>(56쪽): 界說十二 凡以言所爲語之事物者, 曰起詞……界說十三 凡以言起詞所有之動靜者, 曰語詞(계설12. 무릇 서술되는 사물을 표시하는 것은 起詞라고 부른다.……계설13. 무릇 起詞가 가지는 動靜을 표시하는 것은 語詞라고 부른다.)
- d. <句讀章>(636쪽): 起詞者, 卽所志之事物也; 語詞者, 事物之動靜也.(起詞란 것은 기록되는 사물이다; 語詞란 것은 사물의 動靜이다)
- e. <靜字章>(222쪽): 首卷論句讀之成, 必有起、語兩詞. 起詞者, 爲所語也; 語詞者, 所爲語也.……夫事物之可爲語者, 不外動、靜兩境, 故動境語以動

字, 靜境語以靜字, 語詞必以動、靜之字爲之者 常也……靜字成爲語詞 更名曰表詞, 所以有別也. 故曰, 表詞者, 所以決事物之靜境也,……而表詞 則概爲靜字. 然有以名字與頓、豆爲之者, 則必用若靜字然( 첫권에서 句讀 의 성립은 반드시 起詞와 語詞라고 하는 둘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起詞란 것은 서술대상이다; 語詞란 것은 서술을 행하는 것이다.……서술 할 수 있는 사물은 動境과 靜境이라고 하는 두 상황을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動境은 動字로써 서술하고, 靜境은 靜字로써 서술하니, 語詞 는 반드시 動字·靜字로써 이루는 것이 보통이다.……靜字가 語詞로 되 면, 이름을 바꾸어 表詞라고 부르는데, 구별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하건대, 表詞란 것은 사물의 靜境을 판결하는 것이다.……表詞는 대개 靜字이다. 그러나 名字·頓·豆로써 그것[表詞]을 이룬 것이 있으면, 반드시 靜字처럼 그렇게 사용된 것이다.)

위에 보이는 자료에 의거한다면, 劉永耕(1998)과 같이 “動靜”을 “語詞”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문통》은 왜 界說에서 이미 정의된 “語詞”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굳이 “動靜”이란 용어를 선택했을까? 그 이유는, 《문통》 전체에서 “語詞”란 용어는, 述語만을 가리킬 때도 있고 述部를 가리킬 때도 있으며, 또 表詞를 포함할 때도 있고 表詞를 배제할 때도 있는 등 상당히 융통성 있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句讀章>(652쪽)에서 “外動字或爲語詞, 或爲散動, 其止詞必位其後(外動字는 語詞가 되거나 散動이 되며, 그 止詞는 반드시 그 뒤에 위치한다)”라고 말하였는데, 이곳의 “語詞”는 “述語”라는 작은 범위를 가리킨다. 또 同章(668쪽)에서 “凡曰語詞, 則動字與其所繫者皆舉焉(무릇 語詞라고 부르는 것은, 動字와 그것이 연계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들어 말하는 것이다.)”이라고 말하였는데, 이 곳의 “語詞”는 “述部”라는 비교적 큰 범위를 가리킨다. 또 同章(647쪽)에서 “言語詞, 則內動、外動、受動, 與凡爲表詞者皆該焉.(語詞라고 말하면 內動·外動·受動 및 表詞가 되는 것들이 모두 포괄된다.)”이라고 말했는데, 이곳의 “語詞”는 “表詞”까지 포함된 큰 범위를 가리킨다. 위의 c·d에서의 “語詞”도 表詞를 포함할 수 있는 큰 범위의

것이다. 그러나 e에서의 “語詞”는 두 종류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즉 表詞와 대립시켜 사용하지 않을 때는 큰 범위의 것이며, 表詞와 대립시켜 사용할 때는 작은 범위의 것이다. 따라서 《문통》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그 개괄력을 보장하기 위해 “語詞”라는 용어 대신 “動靜”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이고, 이 “動靜”은 c·d·e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바로 ‘動境·靜境’을 의미하며, 動字語詞·表詞뿐만 아니라 심지어 ‘狀字의 수식을 받는 狀字’<sup>5)</sup>까지도 포함하는 “매우 융통성 있는 語詞”라고 말할 수 있다.

2. “狀者<sup>6)</sup>”의 의미를 확정하려면, 먼저 “狀”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漢語大詞典》에 의하면, “狀”의 의미는 ‘陳述’ “描繪” “形狀” 등등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또 “裝”의 通假字가 되기도 한다. 전체 <狀字章> 속의 “狀”자는 경우에 따라 다른 의미로 쓰인다. 예를 들면, 아래 f 속의 “狀”자는 “陳述(나타내다, 설명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g 속의 “狀”자는 “形狀(모양)”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h 속의 “狀”자는 “장식하다 수식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f. <狀字別義節>(392쪽): 《左傳·隱公元年》: 遂惡之(마침내 그[莊公]를 미워했다.) 君將不堪.(임금께서는 장차 그 압박을 감당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不如早爲之所.(일찍이 그의 거처를 마련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遂”將“早”三字, 皆狀時也.(“遂”將“早” 석 자는 모두 시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g. <狀字別義節>(394쪽): 《漢書·汲黯傳》: 何空取高皇帝約束紛更之爲?(그

5) 《狀字章·狀字諸用》(381쪽)에서, “自狀亦然.(狀字 자체를 수식하는 것도 역시 그러하다[수식되는 상자보다 앞선다].) 《孟子·離婁上》: 既不能命, 又不受命, 是絕物也.(吳나라에게 명령을 내릴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그들의 명령을 안 받는다면, 두 나라 사이가 단절되는 것이다.)……: 既‘又’不三字皆狀字也, 兩句‘不’字, 一以‘既’字狀之, 一以‘又’字狀之, 而皆先焉.(‘既’‘又’‘不’의 석 자는 모두 狀字이다. 두 구의 ‘不’자에서, 하나는 ‘既’자가 그것을 수식하고, 하나는 ‘又’자가 그것을 수식하는데, 모두 앞에 위치한다.)”라고 서술하여, 狀字의 수식을 받는 狀字의 경우를 열거했다.

6) <狀字章>에서 도합 세 번 사용되었다.

대는 어찌하여 부질없이 고조황제의 법령규정을 함부로 고치는가?)---  
 ‘空’字以言所取之狀也(‘空’자는 취하는 모양을 설명하는 것이다)

- h. <狀者諸用節>(380-381 쪽): 狀靜字則先靜字.(靜字를 수식하면 靜字를 앞선다.)……《論語·八佾》: 子謂韶, 盡美矣, 又盡善也, 謂武, 盡美矣, 未盡善也.(공자께서 舜임금의 음악인 韶를 이르시되, “지극히 아름답고 또 지극히 선하다”고 하시고, 또 武王의 武樂을 이르시되, “지극히 아름다우나, 지극히 선하지는 않다”고 하셨다.)---‘美’‘善’二字皆靜字, ‘盡’字狀之, 而皆先焉.(‘美’‘善’ 두 자는 모두 靜字 이고, ‘盡’자는 그것을 수식하므로, 모두 앞서고 있다)

그렇다면, “狀者” 속의 “狀”은 어떤 의미로 쓰였으며, “狀者”란 결국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판단하려면, 먼저 “문장성분과 字類는 1:1로 대응한다”(이하 약칭 “대응설”)는 《문통》의 견해를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면:

- i. 《文通·名字章》(68, 80, 81 쪽): 名字, 所以名一切事物者 省曰名……要之, 名無定式, 凡一切單字、偶字, 以至集字成頓成讀, 用爲起詞、止詞、司詞者, 皆可以‘名’名之.(名字는 일체의 사물을 호칭하는 것이고, 간략히 ‘名’이라고 부른다.……요컨대, 名字에는 고정된 형식이 없으니, 일체의 ‘단일자’나 ‘쌍자’나 ‘글자가 모여 이루어진 頓’이나 讀가 ‘起詞’나 止詞나 司詞로 사용되는 것은 모두 ‘名’이라고 호칭할 수 있다.)

위에 보이는 《문통》의 서술은 “起詞나 止詞나 司詞’로 사용되는 것은 모두 ‘名字’로 부를 수 있다”는 것으로, 바로 “문장성분과 字類는 1:1로 대응한다”는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 《문통》이 <例言>에서 “字之在句讀也, 必有所所, 而字字相配, 必從其類(字는 句讀에 있어서 반드시 그 자리를 가지며, 字와 字가 결합할 때는 반드시 그 종류를 따른다.)”라고 말한 것도 역시 동일한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며, 인도유럽어 어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문통》 전체를 살펴보면, 이러한 견해에 의거하여 “狀詞(현대어법학상의 狀語) = 狀字” “表詞 = 靜字” “名字의 修飾語 = 靜字” “起詞·止詞·司詞 = 名字” 등등의 대응관계가 건립되어 있다. 이러한 대

응관계는 각 字類의 일반적 통사기능에 의거한 것이며, 각 字類의 本用이 된다. 그러나 만약 어떤 字가 이러한 本用(즉 건립된 대응관계)을 벗어나면, 《문통》은 “用如”설을 동원하여 해결한다. 다시 말해, 狀字의 本用은 狀詞인데, 表詞를 담당하는 경우를 만나면, “表詞는 靜字가 담당한다(表詞 = 靜字)”는 규칙에 의거하여 아래의 j에 보이듯이 “用如靜字”라고 해설한다. 또 名字의 本用은 起詞·止詞·司詞인데, 다른 名字의 修飾語를 담당하는 경우를 만나면, “名字의 修飾語는 靜字가 담당한다(名字의 修飾語 = 靜字)”는 규칙에 의거하여 아래 k에 보이듯이 “用如靜字”라고 해설한다.

- j. <狀字諸用節>(384쪽): ‘甚’本狀字也, 以煞句讀, 則用如靜字而爲表詞矣. (‘甚’자는 본래 狀字인데, 句讀를 끝맺는 데 쓰이면, 靜字처럼 사용되어 表詞가 된다.) 《孟子·梁惠王下》: 王之好樂甚, 則齊國其庶幾乎!(왕께서 음악을 심히 좋아하시면, 장차 제나라가 잘 다스려질 것입니다.)---‘王之好樂甚’者, 猶云‘王好樂之心能至於極’也, 故‘甚’字所以表好樂之心也. ‘王之好樂’一讀而爲起詞, ‘甚’字其表詞也.(‘王之好樂甚’이란 것은 ‘王好樂之心能至於極’이다. 따라서 ‘甚’자는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데 쓰인 것이다. ‘王之好樂’은 하나의 讀이고 起詞가 되며, ‘甚’자는 그 表詞이다.)
- k. <靜字章>(199쪽): ‘王道’‘王政’‘臣德’‘臣心’之類, ‘王’‘臣’二字本公名也, 今先於其他公名, 則用如靜字矣.(‘王道’‘王政’‘臣德’‘臣心’ 등의 부류에서, ‘王’ ‘臣’ 두 자는 본래 公名[보통명사]인데, 지금 다른 公名보다 앞서니, 靜字처럼 사용된 것이다.)

《문통》에서 “用如”와 동일한 말에는 “用若·用同·用爲” 등이 있고<sup>7)</sup> 또 “與X無異”가 있는데, 때로는 이에 이러한 말들을 생략해버리기도 한다. “用如X” 등등으로 표현되는 것들은 결국 字類의 活用 혹은 別用을 의미한다. 《문통》의 각 字類는 이처럼 本用과 活用在 있고, 이에 따라 相異한 통사기능을 내포하게 된다. 狀字를 두고 말하자면 本用일 때는 위의 h에 보이듯이 수식기능이고, 그 위치는 피수식어(중심어)의 앞에 위치한

7) <<馬氏文通>의“用如”說及其影響>(陳月明) 참조.

다. 活用일 때는 위의 j 에 보이듯이 靜字처럼 사용되어 表詞기능이 되고 피수식어를 갖지 않으며 문구의 말미에 위치한다. 또 혹은 아래의 예 보이듯이 名字처럼 사용되어 止詞기능이 되고 動字 뒤에 위치한다.

1. <名字章>(81쪽): 《漢書·賈誼傳》: 凡人之智 能見已然 不能見將然 夫禮者, 禁於將然之前, 而法者, 禁於已然之後.(사람의 지혜는, ‘이미 그러함’은 볼 수 있으나, ‘장차 그러함’은 볼 수 없다. 禮리는 것은 장차 그러하기 전에 금하는 것이고, 法이란 것은 이미 그러한 후에 금하는 것이다.)---“凡人之智’與‘禮者’‘法者’皆爲起詞, 又‘已然’‘將然’兩皆狀字, 而爲‘見’之止詞, 又‘將然之前’‘已然之後’集四字而成者 卽爲於之司詞 用與名字無異.(이 문장 속의 ‘凡人之智’·‘禮者’·‘法者’는 모두 起詞가 되고, 또 ‘已然’·‘將然’ 둘은 모두 狀字인데, ‘見’의 止詞가 되며 또 ‘將然之前’·‘已然之後’는 녁 자를 모아 이룬 것으로, ‘於’의 司詞가 되는데, 이들은 사용이 名字와 다를 바 없다.)

이러하므로, 狀字의 위치를 설명하려면, 어떤 기능의 狀字를 겨냥한 것 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어야 한다. 그래서 《문통》은 “狀者”라는 말로써 “수식하는 것” 즉 “수식기능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였고, 나아가 “수식기능을 행하는 것”은 반드시 피수식어(중심어)보다 앞서는 것이 常例<sup>8)</sup>(일반 규칙)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狀者” 속의 “狀”은 “장식하다, 수식하다”란 의미로 쓰인 것이다. 또 “狀者”는 “수식기능을 행하는 狀字” 즉 “본용적 기능의 狀字”를 겨냥한 말이며, “활용적 기능의 狀字”는 배제시키는 말이다. 따라서 “狀者”를 단순히 “狀字”로 바꾸어 이해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

8) “常例”라는 것은, 유사비교를 표시하는 “若/如 + X + 然”구조가 피수식어 뒤에 위치하는 “變例”에 대립시킨 말이다. 예를 들면, <狀字諸式節>(390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有時或用名字, 或用靜字, 甚或用讀, 以狀一相似之情者, 則先以‘若’‘如’等字, 而復殿以‘然’字者爲常, 且必置於所狀之後, 此變例也.( 때로 名字를 사용하거나, 혹은 靜字를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讀를 사용하여, 유사한 상황을 수식하는 것은, 먼저 ‘若’‘如’ 등의 글자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다시 ‘然’자를 후미에 놓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꼭 피수식어의 뒤에 놓는데, 이것은 變例이다.)

다. 왜냐하면, “狀者”란 말은, 여러 기능의 狀字에 적용시킨 것이 아니라, 오직 “수식기능을 행하는 狀字”에만 적용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凡狀者, 必先其所狀, 常例也.”라는 <狀字章>의 상자정의와 관련하여, 《文通要例》<sup>9)</sup>(141쪽)는 “所以狀字必用在他所狀的那字前. 這是通常的例子.(따라서 상자는 반드시 그가 수식하는 그 글자의 앞에 사용된다. 이것이 통상적 규칙이다.)”라고 설명하여 “狀者”를 곧장 “狀字”로 간주했다. 그러나 위에서 보인 필자의 분석으로 볼 때, 《文通要例》의 이러한 설명은 편파적인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건대, “狀者”가 곧장 “狀字”로 간주되는 주요원인은, <狀字章>의 “凡狀者, 必先其所狀, 常例也.”가 <正名章·狀字界說>에 있는 “凡狀字, 必先於其所狀”이란 문구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正名章·狀字界說>의 “凡狀字, 必先於其所狀”이란 문구는 문맥에서 볼 때 오직 “수식기능의 狀字”의 위치를 겨냥한 설명이며, “여러 기능의 狀字”를 모두 겨냥한 설명은 아니라고 본다. 논술의 편리를 위해 <正名章·狀字界說>의 단락을 나누어 보이겠다.

제1단: 凡實字以貌動靜之容者, 曰狀字.(動靜[動境·靜境]의 모양을 묘사하는 實字를 狀字라고 부른다.)

제2단: 事物不齊之情, 有靜字以形之. 而事物之行, 亦至不一也. 一人之語

9) 《文通要例》(舒城 陶散生 著, 北京華新印刷局, 中華民國五年[1916])는 《馬氏文通要例啓蒙》이라고도 한다. 王憲明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책 《馬氏文通》의 말이 지나치게 어려워, 일반인이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漢語를 가르치는 사람조차도 파악하기 어려워서, 그 작용의 발휘가 제약되었다. 이것을 고려해서, 舒城의 陶圭(散生)가 그것을 보완하여, 民國2, 3년 사이(1913 ~ 1914년)에 《馬氏文通》의 요점을 따서 俗語로 설명하고 《馬氏文通要例啓蒙》을 이루었다. 이 때는 마침 民國성립 후 교과서개혁을 진행하는 시기였으므로, 陶圭는 그 책을 교육부 심의에 보내었고, 아울러 당시의 교육부 부장 겸 학술위원장을 맡고있던 湯化龍과 과거 북경대학 총장이며 당시의 교육부 總纂 겸 대총통 정치법률외교 고문을 맡고 있던 嚴復 등에게 序를 요청했다.” (王憲明, <介紹嚴復爲《馬氏文通要例啓蒙》所作的《序》>[《清華大學學報》第11卷第2期] 참조)

默行止, 有疾徐輕重久暫之別(사물의 똑같지 않은 상태는 靜字가 있어 그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사물의 행동 또한 매우 똑같지 않다. 사람이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그치는 것에는, 疾·徐·輕·重·久·暫의 구별이 있다.) 故學欲博, 問欲審, 思欲慎, 辨欲明, 行欲篤,<sup>10)</sup> 皆以貌動字之容也.(따라서 學欲‘博’[배움은 넓어야 한다], 問欲‘審’[물음은 자세해야 한다], 思欲‘慎’[생각은 신중해야 한다], 辨欲‘明’[판단은 명확해야 한다], 行欲‘篤’[행함은 독실해야 한다] 등에서, [말줄친 것들은] 모두 動字의 모양을 묘사하는 것이다.) 天子‘穆穆’, 諸侯‘皇皇’, 君子‘謙謙’, 王臣‘蹇蹇’, 大人‘誾誾’, 重言之以狀其容.(天子‘穆穆’[천자의 태도는 바르고 성대하다], 諸侯‘皇皇’[제후의 태도는 莊盛하다], 君子‘謙謙’[군자는 겸손하고 공경한다], 王臣‘蹇蹇’[신하는 충성을 다하여 애쓴다], 大人‘誾誾’[대인은 시비선악을 직언한다] 등에서, [말줄친 것들은] 그 모양을 묘사하는 重言이다.)

제3단: 《孟滕上》: 何爲紛紛然與百工交易?(어찌하여 번거로이 여러 工人들과 교역을 하는가요?)---紛紛然狀交易之容也.(紛紛然은 ‘교역함[交易]’의 모양을 묘사한다.) <滕下>: 匍匐往將食之.(陳仲子님 기어가서 그것을 집어 먹었다.)---匍匐狀艱往之容.(匍匐은 어렵게 ‘가는往’) 모양을 묘사한다.)

제4단: 不特此也, 凡記事物所動之時與所動之處, 亦狀字也.(이것뿐만 아니라, 사물이 움직이는 시기와 움직이는 장소를 기록하는 것도 역시 狀字이다.) 《孟梁上》: 及寡人之身, 東敗於齊, 長子死焉; 西喪地於秦七百里; 南辱於楚, 寡人恥之.(과인의 대에 이르러 동으로 제나라에 패하고 장자가 죽었고, 서로 땅을 진나라에 칠백리나 빼앗기고, 남으로 초나라에 욕을 보았다. 과인이 이것을 부끄럽게 여긴다.)---其‘東’‘西’‘南’三字, 各記敗‘喪’受‘辱’之處(그 ‘東’‘西’‘南’ 석 자는 각각 ‘敗’하고 ‘喪’하고 ‘辱’을 당한 장소를 기록한 것이다.) 又<公下>: 王驪朝暮見(왕환은 조석으로 맹자를 만났다) 又明日出弔於東郭氏.(다음날 맹자가 동곽씨에게 조문을 가려 하다.) 又: 公孫丑曰: “昔者辭以疾, 今日弔, 或者不可乎?”(공손추가 말했다: “어제는 병환을 핑계로 사양하셨는데, 오늘 조문을 하신다면 아마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10) 《禮記》의 “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辨之, 篤行之.”를 용례로 삼은 것이다. (邵靄吉, <釋《馬氏文通》之狀詞、狀字、狀語、狀讀、狀辭> 참조)

가?)---‘朝暮’‘明日’‘昔者’‘今日’諸語，皆以記其時也，用同狀字。(‘朝暮’，‘明日’，‘昔者’，‘今日’ 등은 모두 그 때를 기록하는 것인데, 狀字처럼 사용된다.)

제5단: 《論八佾》: 子謂韶盡美矣，又盡善也，謂武盡美矣，未盡善也。(공자께서 순왕의 음악 韶를 평해 말씀하셨다. “지극히 아름답고, 또 지극히 선하다.” 또 무왕의 무악을 평하셨다. “지극히 아름다우나 지극히 선하지는 않다.”)---‘善’‘美’兩靜字，‘盡’狀字，以狀善‘美’之進境，而‘未’又兩狀字，則又兼狀狀字與靜字矣。(‘善’‘美’ 두 글자는 靜字이고, ‘盡’은 狀字로서 ‘善’‘美’의 심화된 경지를 묘사하며, ‘未’，‘又’의 두 狀字는 狀字와 靜字를 함께 수식한다.)

말단: 凡狀字，必先於其所狀。(무릇 狀字는 반드시 그가 수식하는 것[즉, 그의 수식대상]보다 앞선다.)

위의 자료에서, 제1단은 상자에 대한 총괄적 정의이다. 제2·3·4단은, <句讀章>(694쪽)에서 “상자의 사용에는 3가지가 있다: 記處·記時·記容이라고 부른다. ‘容’이 포함하는 것은 광범하여, 舉止·比較·情景·緣因 및 擬議(예견)·가설의 상황을 모두 포함한다. 11)”라고 서술한 것과 관련 시켜서 보아야 한다. 즉, 제2·3단은 “記容”의 상자에 관한 것이다. 이들 상자는 활용적 “表詞기능”(‘穆穆’‘皇皇’ 등등)과 본용적 “수식기능”(‘紛紛然’‘匍匐’)을 가지고 있다. 이들 상자가 “表詞기능”일 때는 문장의 述語가 되어, 자신의 피수식어를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상대적 위치를 논할 수도 없다. 그러나 “수식기능”일 때는 피수식어의 앞에 위치하고 있다. 제4단은 “記處·記時”의 상자에 관한 것이다. 이들 상자는 모두 “수식기능”을 담당하여, 피수식어의 앞에 위치하고 있다. 제5단은 狀字와 靜字를 함께 수식하는 狀字 “未”“又”에 관한 것이고, 모두 수식기능을 담당하여 피수식어 앞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의 《文通》은 세밀한 단락구분이 없다. 따라서 현대의 독자가 단락을 구분시킨다면, 狀字界說 말단에 놓

11) 狀字爲用有三: 曰記處, 曰記時, 曰記容. 惟容之所包者廣, 凡言及舉止、比較、情景、緣因, 與夫擬議、設想之情狀者, 胥賅焉.

인 “凡狀字, 必先於其所狀.”의 귀속단락은 각자의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만약 “凡狀字, 必先於其所狀.”을 제2·3·4·5단 모두에 귀속시킨다면, 제2단의 “表詞기능”의 상자의 위치와 맞지 않는 모순이 생기지만, 제3·4·5단에만 귀속시킨다면 아무런 모순도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狀字界說 말단의 “凡狀字, 必先於其所狀.”은 제3·4·5단에만 귀속되는 설명이고, 이 설명 속의 “狀字”는 문맥에 기대어 “수식기능”의 상자를 간단히 지칭한 것이며, 제2단에 내포된 “表詞기능”까지도 포함한 상자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

### Ⅲ. 狀字假借

《文通》은 狀字假借節에서 “名字를 가차하여 狀字로 삼은 것”·“靜字를 가차하여 狀字로 삼은 것”·“動字를 가차하여 狀字로 삼은 것” 등, 총 3종을 열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狀字本無定也, 往往假借他類字爲狀字者, 然必置先於其所狀.(狀字는 본래 정해진 것이 없다. 종종 다른 종류의 낱말을 빌려 狀字로 삼지만, 그러나 반드시 수식대상보다 앞에 놓아야 한다.)” 《文通》의 이러한 서술에 의거하면, “類無定字論(字類는 고정된 낱말을 갖지 않는다는 견해)”이 되고, 이것은 결국 “字無定類論 낱말은 고정된 字類를 갖지 않는다는 견해”으로 귀착된다. 그러나 《文通》은 여러 곳에서, “蒼蒼重言, 本狀字也, 今假借爲名(‘蒼蒼’이란 증언은 본래 狀字인데, 지금 名字로 가차되었다.)”(〈名字章〉 71쪽), “昭昭重言, 本狀字也, 今用如內動字(‘昭昭’란 증언은 본래 狀字인데, 지금 內動字처럼 쓰였다.)”(〈動字章〉 331쪽), “甚本狀字也, 以煞句讀, 則用如靜字而爲表詞矣.(‘甚’은 본래 상자인데, 句讀를 끝맺으면 靜字처럼 사용되어 表詞가 된다.)”(〈狀字章〉 384쪽) 등등으로 설명하여, “字有定類論(낱말은 고정된 字類를 갖는다는 견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앞의 “字無定類論”과 뒤의 “字有定類論”이 모순을 빚게 된다. 만약 《文通》이 앞의 “字無

定類論”을 견지한다면 “狀字假借”은 근본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 “낱말은 고정된 字類를 갖지 않으니(字無定類)”, “낱말은 고정된 字類를 갖는다(字有定類)”는 관점 아래서만 성립할 수 있는 “假借”를 논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은, “현대어법학상의 狀語”에 해당하는 “狀詞”를 운용한다면 발생하지 않는다. 즉 名字·靜字·動字 등이 狀字로 가차되었다고 분석할 필요가 없고, 名字·靜字·動字 등이 “狀詞”를 담당했다고 분석하면 그만인 것이다. 《文通》은 <正名章>에서, 대략 현대어법학상의 主語·謂語·賓語 등에 해당하는 起詞·語詞·止詞 등의 문장성분은 정식으로 설치하고 각각 정의를 내렸다. 그러나 “현대어법학상의 狀語”에 해당하는 문장성분은 정식으로 설치하지 않고, 비정식으로 “狀詞”라는 성분을 언급했다. “狀詞”는 <正名章> 속의 句讀관련 界說(계설11-계설23)의 말미(64쪽)에서 출현하는데, 아래와 같다.

- a. 凡起詞必先乎語詞。語詞而爲外動字也，則止詞後焉。如爲內動字也，不必有後之者矣。間有介字與其司詞繫乎內動字而爲加詞者，則先後無常。語詞而爲表詞也者，亦必後乎起詞。凡狀詞必先其所狀。夫靜字以肖事物者，亦所以狀名、代字也，故先所肖焉。推此意也，讀之爲起、止詞者，先後各從其位。其用若狀詞者，亦必先其所狀。不先者，惟以爲所比之讀耳。(무릇 起詞는 반드시 語詞보다 앞에 온다. 語詞가 만약 外動字이면, 止詞가 뒤에 온다. 만일 [語詞가] 內動字이면, 뒤에 오는 성분을 가질 필요가 없다. 간혹 介字와 그 司詞가 內動字에 연결되어 加詞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앞뒤 위치가 수시로 변한다. 語詞가 만약 表詞이면, 역시 반드시 起詞의 뒤에 온다. 무릇 狀詞는 반드시 그의 수식대상을 앞선다. 무릇 사물을 묘사하는 靜字는, 또 名·代字를 수식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앞선다. 이러한 것을 미루어, 起詞·止詞가 되는 讀는 앞뒤로 각각 그 위치를 따른다. 狀詞처럼 사용되는 것은 역시 반드시 그것의 수식대상을 앞선다; 앞서지 않는 것은 단지 비교를 하는 讀일 뿐이다.)

위의 자료에 보이듯이, 《문통》은 “현대어법학상의 狀語”에 해당하는

“狀詞”를 거론했음에도 불구하고 <狀字章>에서는 전혀 운용하지 않고, 名字·靜字·動字 등이 語詞의 수식어가 되면, 이들이 “狀字로 假借되었다”라고 서술하거나 혹은 아예 狀字라고 서술했다. 예를 들면

- b. 《左傳·哀公·十六年》: 生拘石乞而問白公之死焉.(뒤에 석걸을 사로잡았는데, 백공의 죽은 곳을 물었다.)……《漢書·李廣傳》 破廣軍, 生得廣.(이광의 부대를 쳐부수고, 이광을 생포하였다)--- 所引生‘窟’動生等字, 本皆動字, 今假爲狀字矣(인용한 ‘生’‘窟’‘動’‘生’ 등의 낱말은, 본래 모두 動字인데, 지금 狀字로 가차되었다.)(386, 387쪽)
- c. 《孟子·梁惠王上》: 及寡人之身 東敗於齊,……西喪地於秦七百里, 南辱於楚. 寡人恥之.(과인의 데에 와서 동쪽으로는 제나라에게 패했고,…… 서쪽으로는 秦나라에게 땅을 7백리나 빼앗겼고, 남쪽으로는 초나라에게 욕을 보았습니다. 과인은 이런 것을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東’‘西’‘南’三字, 各記其敗喪與見辱之地 蓋記其喪敗之地 卽所以狀其喪敗時之境, 故曰狀字. 惟其爲狀字, 所以先於動字也.(‘東’‘西’‘南’ 석 자는 각각 패배하고 빼앗기고 욕을 본 지역을 기록하였다. 대개 빼앗기고 패배한 지역을 기록한 것은, 실패 때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狀字라고 부른다. 그것이 狀字가 되므로, 動字보다 앞선다.)(391쪽)

그런데, 《문통》은 “狀詞”라는 용어를 거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제로 운용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첫째, “起詞나 止詞나 司詞로 사용된 것은 모두 ‘名’(名字의 약칭)이라고 호칭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대응설에 의거하여 “狀詞”를 “狀字”로 호칭할 수도 있다고 여긴 때문이다. 둘째, 《문통》의 통사성분은, “起詞·語詞·止詞·表詞” 등 등과 같이 모두 “X詞” 형식을 취하였으므로, 語詞의 修飾語도 동일형식을 취하여 “狀詞”라고 부르긴 하였으나, “狀詞”라는 말은 전통적으로 법률상의 “訴狀(고소장)”을 가리키므로, 명칭상의 오해를 피하기 위한 의도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다.

《문통》은 “狀語”라는 용어도 가끔 사용하는데, “현대어법학상의 狀語”와는 차이가 있다. “현대어법학상의 狀語”는 謂詞性偏正結構 중의 수식어

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수식어가 단일글자의 낱말이건 또는 여러 글자의 낱말이건 詞組이건 관계없다. 그러나 《문통》이 사용하는 “狀語”란 용어는, 둘 이상의 글자로 구성되면서 狀字성질을 가진 것들을 가리키는데, 아래의 f·i(<少監馬君墓誌>)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현대어법학상의 詞組뿐만 아니라 分句까지도 포함하며, 단일한 글자의 狀字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 d. 《史記·滑稽列傳》: 若朋友交游, 久不相見, 卒然相睹, 歡然道故(만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던 친구나 교제하는 사람을 뜻밖에 만나, 지난 일을 즐겁게 이야기한다면)---‘卒然’‘歡然’兩狀語, 同上(‘卒然’‘歡然’ 둘은 狀語인데, 기능이 위와 같다.)(<狀字章>380 쪽)
- e. 《史記·項羽本紀》: 不者, 若屬皆且爲所虜.(그렇지 않으면, 너의 족속들은 모두 포로가 되고 말 것이다.)---‘不者’與‘不然’‘非然者’皆狀語之爲頓者, 均在此例.(‘不者’‘不然’‘非然’은 모두 頓이 되는 狀語인데, 모두 이 규칙에 속한다.)(<狀字章>413 쪽)
- f. 狀語有爲頓者. 凡狀字或名字, 集至兩字或三四字, 以記時記處者, 往往自成一頓, 無所名也, 名之狀語.(狀語에는 頓이 되는 것이 있다. 狀字나 名字는 두 자 혹은 서너 자까지 모여서 시간 혹은 처소를 기록하고, 흔히 스스로 한 개의 頓을 이루는데, 명칭이 없으므로, 이것을 狀語라고 호칭한다.)(<句讀章>670-671 쪽)

《문통》은 또 “狀辭”라는 용어도 가끔 사용한다. 예를 들면:

- g. 《禮記·玉藻》: 二爵而言言斯.(두 잔을 받으면 태도를 기쁘게 한다.)---夫如是, 則‘若’‘斯’二字亦可藉以爲狀辭之助語矣.(이러하므로, ‘若’‘斯’ 두 자도 역시 狀辭의 助語로 삼을 수 있다.)(<狀字章>389 쪽)
- h. 更有記時與記處狀字合於他字以成一語者, 此種成語, 概位句讀之首, 非若單字狀字之必先乎動字也. 至記處記時之語, 率用上‘下’‘左’‘右’‘內’‘外’‘中’‘間’等字, 綴於地名人名時代之後, 與夫記價值、記度量、記里數諸名字, 皆可名爲狀辭, 已詳於賓次節矣.(시간이나 처소를 기록하는 狀字가 다른 자에 합해져 하나의 말[一語]을 이루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이루어진 말

은 대개 句讀의 머리에 위치하며, 단일 글자의 狀字가 반드시 動字의 앞에 위치하는 것과는 다르다. 처소나 시간을 기록하는 말은, 대개 ‘上’ ‘下’ ‘左’ ‘右’ ‘內’ ‘外’ ‘中’ ‘間’ 등의 字를 지명이나 인명이나 시대의 뒤에다 껴 매달며, 價値나 度量이나 里數를 기록하는 여러 名字와 더불어 모두 狀辭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미 賓次節에서 상세하다)(〈狀字章〉411 쪽

- i. 《孟子·滕文公上》: 孔子曰: “君薨, 聽於冢宰, 歔粥, 面深墨, 即位而哭.”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임금께서 돌아가시면, 정치는 대신들에게 맡기고, 세자는 죽을 마시고, 슬픔으로 얼굴은 새카맣게 변해서, 정해진 자리에 가서 곡을 한다.”)---‘歔粥’ 兩字, ‘面深墨’ 三字, 間於句中, 非起詞非語詞, 惟言諒陰之容. 又‘歔粥’者, 外動與止詞也, 而‘面深墨’者, 則名字與其表詞也, 似讀非讀, 與上下文無涉也. 無可強名, 故謂之頓, 視同狀辭耳. (‘歔粥’ 두 자, ‘面深墨’ 석 자는, 句 가운데에 참여하는데, 起詞도 아니고, 語詞도 아니며, 오로지 父母喪에 있을 때의 모양을 설명할 뿐이다 또 ‘歔粥’은, 外動과 止詞이고, ‘面深墨’은, 名字와 表詞인데, 讀와 비슷하나 결국 讀는 아니며, 상하문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억지로 호칭할 수 없으므로, 이것을 頓이라고 부르고, 狀辭처럼 볼 따름이다.)……<少監馬君墓誌>云……幼子 娟好靜秀, 瑤環瑜珥, 蘭茁其牙, 稱其家兒也.(〈少監馬君墓誌〉에서 말했다……어린 아들은 어여쁘고 잘생기고 조용하고 빼어나며, 좋은 옥과도 같고, 난초싹이 솟아난 것과도 같아서 그 집안의 아들로서는 잘 어울렸다.)---諸引內, 所有自二字以至五字之頓, 凡以肖面貌、體態、服製、情性、材質等者, 皆 狀語也. 其爲頓也, 既與句讀之起詞、語詞無涉; 而自集之字, 類又無定, 嵌諸句讀, 文勢頓宕(인용된 여러 예문 속에서, 얼굴모양·몸매·복장·성질·재질 등을 묘사한 2字에서 5字에 이르는 頓들은, 모두 狀語이다. 그것들은 頓이 되어, 이미 句讀의 起詞·語詞와는 관계가 없으며, 모여진 字 들은 종류 또한 일정하지 않고, 그것들을 句讀 안에 끼워넣어, 문세가 멈춰지고 지연된다.)(〈句讀章〉673-675쪽)

呂叔湘·王海棻은 위의 g 속의 “狀辭”에 대한 주석(389 쪽)에서 “‘狀辭’는 뜻이 분명하지 않은데, ‘狀字’를 지칭하는 것 같다. ‘助語’는 지금 말하는 ‘後綴’과 같다.”고 말했다. 또 위의 i 자료에 의거하면, “狀辭”는 “狀語”와도 호용되는 것이다.

## IV. 狀字諸式

《문통》은 狀字諸式節에서 狀字의 형식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곳에서 분석된 상자는, 의미면에서는 “모양이나 소리를 본뜨는 狀字(狀字用以象形肖聲者)”에 한정되며, 형식면에서는 “多字式”에 한정되고 “單字式”은 배제되었다. “單字式”의 상자는 狀字別義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文通要例》(139-141쪽)는 “狀字假借各種式”이란 節名을 새로이 설립하고, 이 節名의 아래에다 《문통》의 “狀字諸式”節의 내용을 요약했는데, 이러한 처리는 狀字諸式節에 열거된 상자들이 아래 a·b에 보이는 呂叔湘·王海棻의 분석처럼 他類字 여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狀字諸式節에 열거된 狀字의 형식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표는 “혹은”을 의미함)

## ①雙聲:

㉠비동일 편방: 流離(유랑하다) 留連(계속 머무르다) 含糊(모호하다)

㉡동일 편방: 躊躇(망설이다) 磅礴(쿵쿵, 와르르) 率真(솔직담백하다)

## ②疊韻:

㉢비동일 편방: 胡盧(크게 웃는 모양) 支離(무질서함) 滅裂(산산조각남)

㉣동일 편방: 猖狂(광폭하다) 蹉跎(헛되이 보내다) 淹滯(오래 머무름)

③重言: 匆匆(어수선한 모양) 鞅鞅(불평을 품고 만족하지 않는 모양)

④(重言)+(然/如/乎): 芒芒然(멍청한 모양) 侃侃如(굳세고 강한 모습) 蕩蕩乎(광대한 모양)

⑤(임의의 글자)+(然/焉/如/乎/爾/若/斯): 油然(뭉게뭉게) 忽焉(신속한 모양)

⑥(若/如)+(名字/靜字/讀)+(然): 若登天然(마치 하늘에 올라 가는 것과 같다)

狀字諸式節은 후대의 연구자들에 의해 비평받는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邵靄吉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비평을 가했다: “<狀字章>

의 400여개의 예구 중에서 單字狀字가 80%이상을 차지하므로, 單字式 이 마땅히 ‘狀字諸式’의 가장 주요한 형식이 되어야 하는데 배제하였고, 또 狀字別義節에서 거론된 6大類 중의 第3類의 의미를 가진 狀字의 형식만 분석하였으니, 이것은 ‘狀字諸式’이라고 하는 제목과 들어맞지 않는다.<sup>12)</sup> 또 章錫琛(《馬氏文通校注》, 中華書局)은 “率眞”은 雙聲이 아니며, “淹滯”은 疊韻字가 아니라고 비평했다. 또 呂叔湘·王海棻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타당한 비평을 가했다.

- a. ‘沈離’‘留連’…… 등은 <動字章·雙聲疊韻者>에서 이미 動字에 포함시켰지만, 그러나 또 “雙聲疊韻의 여러 낱말들은, 모양을 묘사는 것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개 狀字와 통한다”고 말했다. 마씨가 보기에 이러한 낱말들은 動字로 간주할 수도 있고, 狀字로 간주할 수도 있다.<sup>13)</sup>
- b. 雙聲·疊韻·重言 및 ‘×然’‘×乎’의 狀字들은 動字·靜字를 수식하기 어렵고(어떤 것은 전혀 수식하지 않음), 오히려 항상 表詞가 되니[重言]+[然/如/乎] 단락과 [임의의 글자]+[然/焉/如/乎/爾/若/期] 단락 안에 예문이 적지 않음), 靜字처럼 쓰인다.……雙聲·疊韻·重言 등등을 한 개의 字類 속에 넣자는 마씨의 주장은 무리한 것이 아니지만, 既‘又’‘不’ 등과 같이 한 종류에 소속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용법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字類의 구별에 큰 변경을 해야 한다 즉 ‘既’‘又’‘不’ 등을 狀字類에 남겨 주고 雙聲·疊韻·重言 등등을 한 종류로 정하고 靜字라고 부른다. 원래의 象靜字는 動字 속에 편입하고, 謂字라고 총칭한다.<sup>14)</sup>

위에 보이는 비평들은, “狀字諸式の 편파적 분석”·“字音분석의 오류”·“歸類의 문제” 등을 겨냥한 것이다. 현대어법학의 관점에서 볼 때, 狀字諸式에 보이는 문제는, 위의 비평들에서 보이는 것 외에도 중요한 문제들

12) <《馬氏文通》狀字章述評>(邵靄吉) 참조

13) 《馬氏文通讀本》 387쪽 주석 참조.

14) 《馬氏文通讀本·導言》 참조.

이 있다.

첫째, 비밀관적인 “字類구분의 표준” 문제이다. 《문통》은 일반적으로 “의미”와 “기능”에 의거하여 字類를 구분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도 유럽어에 보이는 것과 같은 字類의 형태를 찾아 그것에 의거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附加式 형태표지를 가진 인도유럽어의 부사와 대응시킬 수 있는 聯綿字<sup>15)</sup>(쌍성·첩운)·重言·後綴 然·如·乎·焉·爾·若·斯 등의 형태를 찾아내었고, 나아가 본 논문의 “5장 a” 자료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러한 형태를 가진 것들이 의미성질에서 모두 “象形肖聲者(모양이나 소리를 묘사하는 것)”이므로, 강제적으로 “狀字”에 귀속시키고 이들의 “기능의 차이”는 강제로 “狀字의 활용적 기능”으로 간주했다. 이리하여 “僮僕欣欣如也.(어린 종도 대단히 공손하였다.)”(388쪽), “六轡沃若.(여섯 고삐 매끈하게 빛난다.)”(389쪽) 속의 “欣欣如”·“沃若” 등등과 같이 靜字로 귀속시켜야 할 것들이 狀字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처리는 《문통》이 字類구분에서 때로는 “의미”와 “기능”에 의거하고 때로는 “형태”와 “의미”에 의거하는 비밀관적인 표준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楊榮祥(1996)이 타당한 분석을 가한 바 있다. 즉, 馬氏는 전통훈고학의 영향으로 字類에서 “의미상의 해석”을 잊지 못해, 狀字의 “肖貌容狀”“象形肖聲”의 의미특징을 강조하였고, 따라서 “雙聲·疊韻·重言” 및 “(임의의 글자)+(然/焉/如/乎/爾/若/斯)” 등이 “~的樣子”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狀字”로 보았다고 분석했다.

둘째, “(若/如)+(名字/靜字/讀)+(然)” 형식은, 하나의 구조이지 字(낱말)가 아닌데, 이 형식을 狀字의 형식에 포함시킨 문제이다. 이 문제도 역시 “名字에는 고정된 형식이 없으니, 일체의 ‘단일자’나 ‘쌍자’나 ‘말자’가 모여 이루어진 頓이나 讀가 ‘起詞’나 ‘止詞’나 ‘司詞’로 사용된 것은 모두 ‘名’(名字의 약칭)이라고 호칭할 수 있다.”(<名字章>) 라고 말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장성분과 字類는 1:1로 대응한다”는 《문통》의 견해에

15) 즉 “聯綿詞”이다. 두 음절이 연결되어 의미를 이루며 둘을 분리해서 말할 수는 없는 낱말을 가리킨다.

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 “(若/如)+(名字/靜字/讀)+(然)” 형식은 하나의 구조이고, 피수식어의 뒤에 위치하는 “變例”이긴 하지만, 狀字의 기능인 “수식어 기능”을 담당하므로, “狀字”로 불리도 무방하다고 여기고, 나아가 “狀字” 형식에 포함시킨 것이다

## V. 狀字收字

현대어법학의 관점에서 볼 때, <狀字章>에 수록된 狀字 중에는 마땅히 다른 字類에 귀류시켜야 할 것들이 있다. 이 문제는, 첫째 聯綿字·重言·後綴 등의 형태와 象形肖聲(모양이나 소리를 묘사함)의 의미에 의거한 歸類에서 비롯되었거나, 둘째, 주관적 의미에 의거한 귀류에서 비롯되었거나, 셋째, 대응설에 의거하여 “狀詞” 위치에 온 것들을 “狀字”로 부른 것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유형은 본 논문의 4장에서 이미 고찰하였으므로, 5장에서는 둘째 유형과 셋째 유형을 고찰한다.

### 1. 주관적 의미에 의거한 狀字

<狀字章>에 수록된 狀字 중에서, 독자들이 가장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비교에 사용되는 “猶·若·如” 등의 상자일 것이다. 呂叔湘은 孫玄常의 《馬氏文通札記》에서 “마씨가 ‘如·若·猶’를 상자로 간주한 것은 황당무계한 견해에 가깝다.”라고 비평했다. 《문통》은 狀字別義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a. 狀字往往單詞隻字，而以義可別者有六……三，以言事之如何成者。此記成事之容，前所謂雙聲疊韻與重言諸字，以爲象形肖聲者，皆此類也。……至‘猶’‘若’‘如’等字用以爲此者，亦以記成事之容。(狀字는 흔히 하나의 낱말이 한 개의 글자이고, 의미로써 구별할 수 있는 것에 6가지가 있다……셋째 일을 어떻게 이루는가를 설명하는 것. 이것은 일을 이루는 모양을 기록

하는데, 앞에서 말했던 雙聲疊韻과 重言의 여러 낱말들은 모양이나 소리를 묘사하는 것들이고, 모두 이 종류이다.……비교를 하는 데 사용되는 ‘猶·若·如’ 등도 역시 일을 이루는 모양을 기록하는 것이다)……  
 《孟子·告子上》: 性猶杞柳也, 義猶柎棬也.(인간의 本性은 마치 유연한 버들과 같고, 義는 마치 버들가지를 휘어서 만든 그릇과 같습니다)……  
 此‘猶’字所以記容之狀字也.(이 ‘猶’자는 모양을 기록하는 狀字이다.)……  
 《左傳·昭公十二年》: 與王言如響, 國其若之何?(지금 임금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메아리 같으니, 나라를 어떻게 하자는 것이오?)……  
 《史記·商君列傳》: 君之危若朝露.(당신은 마치 아침이슬처럼 위험합니다.)  
 ---諸句內所有‘如’‘若’等字, 皆以狀所比也. 而‘猶’‘如’‘若’諸字之所狀, 或爲名字, 或爲靜字, 或爲一讀皆可.(여러 문장 안의 ‘如’‘若’ 등은 모두 비교하는 것을 수식하는 것이다. ‘猶’‘如’‘若’ 등이 수식하는 것은, 名字이거나, 혹은 靜字이거나, 혹은 하나의 讀 이거나 모두 괜찮다)

위에서 보듯이 《문통》은 비교에 사용되는 “猶·若·如” 등을 한 종류의 狀字로 묶었다. 그러나 비교에 사용되는 “猶·若·如” 등은 《문통》 전체에서 일관성 없이 분석되고 있다. 즉, 다음과 같이 同動字로도 분석된다.

- b. <靜字章>(230쪽): 《漢書·董仲舒傳》: 夫上之化下, 下之從上, 猶泥之在鈞, 唯甄者之所爲, 猶金之在鎔, 唯冶者之所鑄.(무릇 위가 아래를 교화하고 아래가 위를 따르는 것은, 마치 녹로의 진흙이 도공이 주무르는 대로인 것과 같으며, 마치 도가니의 쇠가 대장장이가 주조하는 대로인 것과 같습니다.)---起, 表兩詞皆讀, 中以‘猶’字連之, 所以決其有似如是也. 故‘猶’字狀字也, 而亦可視同同動字者此也.(起詞와 表詞 이 들은 모두 讀이고, 중간에 ‘猶’자로써 그들을 연결하였으니, 이와 같이 닮은 점이 있음을 판결하는 것이다. 고로 ‘猶’자는 狀字이나, 同動字처럼 볼 수도 있는 것은 이것이다.)
- c. <句讀章>(690쪽): 《史記·淮陰侯列傳》: 夫以交友言之, 則不如張耳之與成安君者也.(무릇 교우관계의 깊이를 가지고 말한다면, 張耳가 成安君과 친선하던 것만 못하다.)……《史記·貨殖列傳》: 趨時若猛獸驚鳥之

發(시기를 보아 행동하는 것은 사나운 짐승과 새가 먹이에게 뛰어드는 것과 같았다.)……諸引‘如’‘若’等字後，皆有讀與比，一若止詞然者。故識於此，與四卷同動字同義(여러 인용예문 중의 ‘如’ ‘若’ 등의 뒤에는 모두 비교를 하는 讀가 있는데, 止詞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곳에 기재하였고, 제4권의 同動字와 동일의미이다)

- d. <動字章·同動字>(313쪽): ‘如’字爲用不一，而作同‘若’之解者，其後皆有名、代等字以爲止詞，或爲表詞亦可，與動字無異，故列入同動字。‘若’字亦然。(‘如’자의 쓰임은 동일하지 않다. 同‘若’으로 해석되는 것은, 그 뒤에 모두 名字·代字 등을 가져 止詞로 삼거나, 혹은 表詞로 삼을 수도 있는데, 動字와 차이가 없으므로, 同動字에 넣는다. ‘若’자도 역시 그러하다.)

이상의 자료를 종합하면, 《문통》은 똑같이 비교에 사용된 “猶·如·若” 등에 대해, <상자장>에서는 상자로 분석하고, 다른 곳에서는 同動字로도 분석하였다. 특히 c에 보이는 “趨時若猛獸鷺鳥之發”이란 예문은 <상자장>(395쪽)에도 똑같이 출현하는 동일예문인데, 그 곳에서는 “若”을 “狀字”로 분석하고, c(<句讀章>)에서는 “同動字”로 분석했다. 또 “猶·如·若” 등의 뒤의 성분에 대해, <상자장>에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으나, b(<靜字章>)에서는 表詞로 분석하고, c(<句讀章>)에서는 止詞로 분석했다.

《문통》의 실례를 고찰하면, “猶·如·若” 등을 狀字로 분석하였을 때는 “類似比較”를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상자장>(382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e. 《孟子·離婁上》: 視天下悅而歸己，猶草芥也。(천하가 기뻐하며 자기에게 귀순함을 마치 지푸라기처럼 본다.)---‘草芥’名字也，‘猶’字狀之。蓋舜視天下之歸己，其不足重經，非眞爲草芥也，惟視同草芥耳，此‘猶’字之所以爲狀也。(‘草芥’는 名字이고, ‘猶’자는 그것을 수식한다. 대개 舜임금이 천하가 자기에게 귀의하는 것을 보았으나, 중시하지 않았다는 뜻이니, 정말로 ‘草芥[지푸라기]’라는 것이 아니라, ‘草芥’처럼 본다는 것일 따름이다. 이것이 ‘猶’자가 狀字가 되는 이유이다.)

- f. 《史記·封禪書》: 獲一角獸, 若麟然.(한 마리의 뿔짐승을 잡았는데, 마치 기린 같았다.)---‘若麟然者, 有似於麟也, 非眞麟也, 先以若字, 復以‘然’字爲殿者, 亦常例也.’(‘若麟然’은 ‘기린과 비슷하다’는 뜻이고, 정말로 기린이란 것은 아니다. 먼저 ‘若’자를 사용했고, 다시 ‘然’ 자로써 後尾를 삼았으니, 일반적 규칙이다.)

한편, ‘如’‘若’ 등을 同動字로 분석하였을 때는 “相同比較”를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動字章·同動字>(313-314 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f. 《史記·黥布列傳》: 出就舍, 帳御飲食從官, 如漢王居.(몰려나와 숙사에 들어가니, 장막·의복·음식·수종관원들이 한왕의 거처와 똑같았다.)  
---‘如漢王居’者, ‘與漢王居相同’也.(‘如漢王居’는 ‘與漢王居相同’이다)
- g. 《史記·陸賈傳》: 太尉亦報如之.(태위 역시 그와 똑같이 답례했다.)  
---‘如之’者, ‘與之同’也.(‘如之’는 ‘與之同’이다)
- h. 《史記·淮陰侯列傳》: 果若人言. 狡兔死, 良狗烹; 高鳥盡, 良弓藏; 敵國破, 謀臣亡. 天下已定, 我固當烹.(과연 사람들이 말하는 바와 똑같구나. 날랜 토끼가 죽으면 좋은 개는 삶기게 되고, 높이 나는 새가 없어지면 좋은 활은 필요 없게 되며, 적국이 망하게 되면 모신이 죽게 된다고 했다. 천하가 이미 평정되었으니, 내가 삶기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果若人言’者, ‘誠如人言’也.(‘果若人言’은 ‘誠如人言’이다.)

위에서 보듯이, 《문통》은 “猶·如·若” 등이 “類似比較”의 의미가 강하면 “狀字”로 분석하고, “相同比較”의 의미가 강하면 “同動字”로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의미표준은 주관적인 것이다.

《문통》에서 비교에 사용된 “猶·如·若”이 “狀字”·“同動字”로 갈라지는 현상은, 文白詞典에서 “猶·如·若”이 “부사”·“동사”로 갈라지는 현상과 같다. 예를 보자.

《漢字古今義合解字典》	《應用漢語詞典》
猶: 同, 似.	同: [動]相同 似: [副]似乎. [動]像; 如同.
如: 如同, 好像	如同: [動]好像 有如 好像: [副]有些像; 類似; 大概.
若: 像, 如同.	像: [副]彷彿, 好像. [動]表示兩個事物有較多的共同點. 如同: [動]好像 有如

위의 도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비교에 사용되는 “猶·如·若” 등을 백화 의미에 따라 분석하면, 모두가 부사·동사로 갈라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문통》에서 “狀字”·“同動字”로 갈라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상의 고찰들로 볼 때, 《문통》은 주관적 의미에 의거하여 “猶·如·若”의 字類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예문의 “猶·如·若” 등이 “類似比較”의 의미가 강하여 “似乎”나 “彷彿” 등과 같은 부사로 번역되는 것이 적합할 때는 “狀字”로 분석하고, 예문의 “猶·如·若” 등이 “相同比較”의 의미가 강하여 “如同” 같은 동사로 번역되는 것이 적합할 때는 “同動字”로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의미에 의거한 字類 판단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趨時若猛獸鷲鳥之發” 속의 “若”에 대해 <상자장>(395쪽)에서는 “狀字”로 분석하고, <句讀章>(690쪽)에서는 “同動字”로 분석하는 비일관성이 드러난 것이다.

## 2. “狀詞” 위치에 의거한 狀字

《문통》은 <名字章>(81쪽)에서 “名字에는 고정된 형식이 없으니, 일체의 ‘단일자’나 ‘쌍자’나 ‘글자가 모여 이루어진 頓이나 讀가 ‘起詞나 止詞나 司詞’로 사용되는 것은 모두 ‘名(名字의 약칭)이라고 호칭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러한 견해를 견지하여 “狀詞”는 원래 狀字가 담당하므로, 狀詞의 자리에 사용된 것은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모두 狀字로 부르기도

했다. 이리하여 <狀字別義節>의 狀字에는 아래 a에 보이는 것처럼 名字(‘家’)·介字(‘犁’)·滋靜字(‘三’) 등의 非狀字類가 포함되었다.

- a. 狀字往往單詞雙字, 而以義可別者有六.(상자는 흔히 하나의 낱말이 한 개의 글자이고, 의미로써 구별할 수 있는 것에 6가지가 있다.) 一, 以指事成之處者.(첫째, 일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가리키는 것.)……乃病免家居.(병을 핑계로 벼슬을 그만둔 다음 집에서 지냈다.)---‘郊’‘北’與‘家’三字, 亦記處也.(‘郊’‘北’‘家’ 석 자는 역시 장소를 기록한 것이다.)……二, 以記事成之時者.(둘째, 일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기록하는 것.)……《史記·晉世家》: 犁二十五年, 吾冢上柏大矣.(25년 무렵이면, 제 무덤의 측백나무도 이미 크게 자랐을 것입니다.)---‘犁’者, ‘比’也.(‘犁’는 ‘比’이다)……四, 以度事成之有如許者.(넷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가량 되는지를 재는 것.)……《左傳·昭公十四》: 三數叔魚之惡, 不爲末滅.(아우 숙어의 악을 세 번 따지되, 조금도 경감하지 않았다.)---‘三’者, 言數惡之次也, ‘末’者, 言所滅之如許也.(‘三’은, 죄악을 따진 회수를 말하며, ‘末’은, 경감한 분량을 말한다.)

《문통》의 이러한 처리에 대해, 呂叔湘·王海榮은 “《文通》이 狀字의 문제를 처리할 때 또 하나의 결점이 있으니, 바로 ‘狀字’라는 한 가지 명칭으로 하여금 두 가지의 다른 용법, 즉 字類이면서 또한 句子成分(문장성분)의 용법을 갖게 했다는 것이다.<sup>16)</sup>”라고 비평했다. “狀字”라는 한 가지 명칭을 字類의 일종으로 사용하고, 또 문장성분의 일종으로 사용하는 체계는, 역시 본 논문의 2.2절에서 거론한 바 있는 “문장성분과 字類는 1:1로 대응한다”는 《문통》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다.

## VI. 결 론

본 연구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6) 《馬氏文通讀本·導言》 참조.

① 《文通》은 <名字章>에서 “名字에는 고정된 형식이 없으니, 일체의 ‘단일자’나 ‘쌍자’나 ‘글자가 모여 이루어진 頓이나 讀가 ‘起詞나 止詞나 司詞’로 사용되는 것은 모두 名(名字의 약칭)이라고 호칭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바로 “문장성분과 字類는 1:1로 대응한다”(약칭 대응설)는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의거하여, 《문통》에는 “狀詞(현대어법학상의 狀語) = 狀字” “表詞 = 靜字” “名字의 修飾語 = 靜字” “起詞·止詞·司詞 = 名字” 등등의 대응관계가 건립되어 있다. 이러한 대응관계는 각 字類의 일반적 통사기능에 의거한 것이며, 각 字類의 本用이 된다. 그러나 만약 어떤 字가 이러한 本用을 벗어나면, 《문통》은 “用如(用若·用同·用爲·與X無異)” 설을 동원하여 해결하는데, 이것은 각 字類의 活用 혹은 別用이 된다. 예를 들면, 狀字의 本用은 狀詞인데, 表詞를 담당하는 경우를 만나면, “表詞는 靜字가 담당한다(表詞 = 靜字)”는 규칙에 의거하여 “用如靜字(靜字처럼 사용된다)”라고 해설한다. <狀字諸用節>(384쪽)에서 “甚’本狀字也, 以煞句讀, 則用如靜字而爲表詞矣.(甚’자는 본래 狀字인데, 句讀를 끝맺는 데 쓰이면, 靜字처럼 사용되어 表詞가 된다.)”라고 말한 것이 그 실례이다. 또 狀字가 止詞를 담당하는 경우를 만나면, “止詞는 名字가 담당한다(止詞 = 名字)”는 규칙에 의거하여 “與名字無異”라고 해설한다. <名字章>(81쪽)에서 “《漢書·賈誼傳》: 凡人之智能見已然, 不能見將然. 夫禮者, 禁於將然之前, 而法者, 禁於已然之後.(사람의 지혜는, ‘이미 그러함’은 볼 수 있으나, ‘장차 그러함’은 볼 수 없다. 禮라는 것은 장차 그러하기 전에 금하는 것이고, 法이란 것은 이미 그러한 후에 금하는 것이다.)……‘已然’‘將然’兩皆狀字, 而爲‘見’之止詞, ……用與名字無異.(‘已然’·‘將然’ 둘은 모두 狀字인데, ‘見’의 止詞가 되며, ……이들은 사용이 名字와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한 것이 그 실례이다.

② <狀字章·狀字諸用節>에서 보이는 狀字定義는, “狀字, 所以貌動靜之容者. 狀字之於動字, 亦猶靜字之於名字, 皆所以肖貌之者也. 凡狀者, 必先其所狀, 常例也.”이다. 이 정의 속의 “動靜”은 “動境·靜境”이란 의미이고 개괄력을 보장하기 위한 용어이며, 動字語詞·表詞뿐만 아니라 심지어 “狀

字의 수식을 받는 狀字”까지도 포함하는 “매우 융통성 있는 語詞”라고 말할 수 있다. 또 “狀者”는 “수식(장식)하는 것” 즉 “수식기능을 행하는 것”이란 의미이다. 따라서 전체 정의는 “狀字는 動境·靜境의 모양을 묘사하는 것이다. 狀字가 動字에 대한 것은, 靜字가 名字에 대한 것과 같으며 모두가 모양을 묘사하는 것이다. 무릇 수식기능을 행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수식하는 대상보다 앞서는 것이 일반규칙이다.”라고 해석된다.

③ <狀字章·狀字假借節>에서 보이는 “字無定類論”은 여러 곳에서 보이는 “字有定類論”과 모순된다. 《문통》이 만약 狀詞(현대어법학의 “狀語”)라는 문장성분을 운용했다라면, “假借說”이 필요없었을 것이고 또 모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통》이 <正名章>에서 “狀詞”라는 용어를 거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운용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起詞나 止詞나 司詞로 사용된 것은 모두 ‘名’(名字의 약칭)이라고 호칭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대응설에 의거하여 “狀詞”를 “狀字”로 호칭할 수도 있다고 여긴 때문이다. 둘째, 《문통》의 통사성분은, “起詞·語詞·止詞·表詞” 등등과 같이 모두 “X詞”형식을 취하였으므로, 語詞의 修飾語도 동일형식을 취하여 “狀詞”라고 부르긴 하였으나, “狀詞”라는 말은 전통적으로 법률상의 “訴狀(고소장)”을 가리키므로, 명칭상의 오해를 피하기 위한 의도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다.

④ 《문통》은 일반적으로 “의미”와 “기능”에 의거하여 字類를 구분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도유럽어에 보이는 것과 같은 字類의 형태를 찾아 그것에 의거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附加式 형태표지를 가진 인도유럽어의 부사와 대응시킬 수 있는 “聯綿字·重言·後綴” 등의 형태를 찾아내었고, 나아가 이러한 형태를 가진 것들이 의미성질에서 “象形肖聲者(모양이나 소리를 묘사하는 것)”이므로, 모두 강제로 “狀字”에 귀속시키고 이들의 “기능의 차이”는 강제로 “狀字의 활용적 기능”으로 간주했다. 또 “猶·如·若” 등이 “類似比較”의 의미가 강할 때는 “狀字”로 분석하고, “相同比較”의 의미가 강할 때는 “同動字”로 분석하는 실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관적 의미에 의거하여 字類를 구분했다. 이러한 것들은 《문통》

의 字類區分標準의 비일관성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 때문에 “狀字”에 靜字로 귀속되어야 할 것들이 포함되었고, 또 “趨時若猛獸驚鳥之發” 속의 “若”에 대해 <狀字章>에서는 “狀字”로 분석하고, <句讀章>에서는 “同動字”로 분석하는 비일관성이 드러났다.

⑤ 《문통》은 위의 ①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狀詞 = 狀字”라는 대응설에 의거하여, “狀詞” 자리에 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狀字”로 부르기도 했다. 이리하여 《文通》의 “狀字”라는 명칭은 字類의 일종으로도 사용되고, 또 문장성분의 일종으로도 사용되었다. 그 결과, 《문통》의 狀字에는, 狀詞를 담당하는 “名字·介字·滋靜字” 등이 포함되었다.

⑥ <狀字章>의 “狀字”는, 본론에서 토론했던 문제들 외에도 몇 가지 문제들이 남아있다. 예를 들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狀字 뒤에 긴밀히 붙어 있는 성분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狀字章·狀字諸用節>(381쪽)에서 “君是以不果來也.(임금께서 이 때문에 결국 만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속의 “不”은 “果”를 수식한다고 분석하였는데, 실은 “果來”를 수식한다고 분석해야 옳은 것이다. 또 “乃病免家居 병을 핑계로 벼슬을 그만둔 다음 집에서 지냈다” 속의 “家”에 대해 <狀字別義節>에서는 “狀字”로 분석하고, <名·代之次·賓次節>(180쪽)에서는 賓次로 분석한 것 등등이다.

### <參考文獻>

- 陶散生, 《文通要例》(華新印刷局), 民國5年(1916).  
 呂叔湘·王海棻, 《馬氏文通讀本》(2000年2月第1版, 上海教育出版社).  
 劉永耕, <《馬氏文通》의 “狀字”和“狀詞”、“狀語”、“轉詞”、“加詞”、“狀讀”>, 《福建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998年第3期.  
 李立, <簡評《馬氏文通》狀字章>, 《語文研究》1999年第1期.  
 李春普, <試析《馬氏文通》中的“狀詞”與“狀字”>, 《佳木斯大學社會科學學報》第20卷第1期.

- 商務印書館辭書研究中心編(郭良夫 主編),《應用漢語詞典》(商務印書館),  
2000年
- 邵靄吉,〈《馬氏文通》狀字章述評〉,《鹽城教育學院學報》第13卷第2期,  
1998.
- ,〈釋《馬氏文通》之狀詞、狀字、狀語、狀讀、狀辭〉,《鹽城教育學  
院學報》第13卷第4期,1998.
- ,〈《馬氏文通》“狀字”研究述評〉,《鹽城師範學院學報》(人文社會  
科學版)第23卷第4期
- 孫玄常,《馬氏文通札記》(安徽教育出版社).
- 宋紹年,《馬氏文通研究》(北京大學出版社).
- 楊樹達,《馬氏文通刊誤》(中華書局).
- 楊榮祥,〈試析《馬氏文通》狀字部分存在的問題〉,《語言研究》1996年第2期
- 吳松泉,〈《馬氏文通》狀字質疑〉,《四川師範大學學報》(社科版)1993.1.
- 王海棻,《馬氏文通與中國語法學》(安徽教育出版社).
- 王憲明,〈介紹嚴復為《馬氏文通要例啓蒙》所作的《序》〉,《清華大學學報》  
第11卷第2期.
- 張國憲,〈《馬氏文通》狀字章問題述略〉,《淮北煤師院學報》(社會科學  
版)1989年第1期
- 張俠,〈《馬氏文通》中的所謂狀字〉,《營口師專學報》(哲學社會科學  
版)1989年第1期
- 張萬起 編,《馬氏文通研究資料》(中華書局).
- 蔣文野,〈《馬氏文通·狀字》辨析〉,《鎮江師專學報》(社會科學版)1997年  
第3期
- 秦嘉英,〈《馬氏文通》狀字今解〉,《松遼學刊》社科版(四平)1991.1.
- 陳月明,〈《馬氏文通》的“用如”說及其影響〉,《古漢語研究》1999年第1期
- 郝光順,〈從狀字看《馬氏文通》字的功能分類〉,《松遼學刊》1988年第4期
- 韓荔華,〈論《馬氏文通》中的“狀字”〉,《北京第二外國語學院學報》1999年  
第1期

許威漢 陳秋祥 主編,《漢字古今義合解字典》(上海教育出版社),2002年。  
胡慧君,〈淺析《馬氏文通·狀字》〉,《湖北成人教育學院學報》第0 卷第  
期,2004年。

### 〈中文提要〉

本文通過對《馬氏文通·狀字章》的考察分析,得出如下結論:

① 《馬氏文通·名字章》說:“名字,所以名一切事物者,省曰名。……要之,名無定式,凡一切單字、偶字,以至集字成頓成讀,用爲起詞、止詞、司詞者,皆可以名名之。”這就反映出《文通》的‘句子成分与字類一一對應’的觀點。依據這樣的觀點,《文通》中存在着“狀詞(現代語法學所說的狀語) = 狀字”、“表詞 = 靜字”、“名字的修飾語 = 靜字”、“起詞、止詞、司詞 = 名字”等等的對應關係。這些對應關係是《文通》根據各字類的經常性功能確立的,意味着各字類的本用。如果碰到某個字有軼出自己的本用的現象,《文通》就用“用如(用若·用同·用爲·與X無異)說”來解決,這意味着各字類的活用或別用。也就是說,狀字的本用是狀詞,而碰到狀字充任表詞的現象,就依據“表詞由靜字充任”這樣的規則說“用如靜字”。例如,〈狀字章·狀字諸用節〉說:“甚本狀字也,以煞句讀,則用如靜字而爲表詞矣。”如果碰到狀字充任止詞的現象,就依據“止詞由名字充任”這樣的規則說“與名字無異”。例如,〈名字章〉說:“《漢書·賈誼傳》:凡人之智,能見已然,不能見將然。夫禮者,禁於將然之前,而法者,禁於已然之後。……‘已然’‘將然’兩皆狀字,而爲‘見’之止詞,……用與名字無異。”

② 〈狀字章·狀字諸用節〉中,狀字定義是“狀字,所以貌動靜之容者。狀字之於動字,亦猶靜字之於名字,皆所以肖貌之者也。凡狀者,必先其所狀,常例也。”這個定義中,“動靜”的含義是“動境、靜境”,“狀者”的含義是“裝飾者”、“發揮修飾功能的”。

③ 〈狀字章·狀字假借節〉中,“字無定類論”與隨處可見的“字有定類論”

相矛盾。如果《文通》使用“狀詞”這個術語，那麼“假借說”就無用了，而且矛盾也沒有了。《文通》在〈正名章〉中，提過“狀詞”這個術語，可是為何沒有使用呢？第一，因為根據“用為起詞、止詞、司詞者，皆可以名名之”這段話，可以依據對應說把“狀詞”叫作“狀字”。第二，《文通》的句法成分採用“起詞、語詞、止詞、表詞”等“X詞”形式，於是不得不把語詞的修飾語叫作“狀詞”，但是“狀詞”這個名稱，傳統上指法律上的“訴狀”，所以為了回避名稱上的誤會，可能故意沒有使用“狀詞”這個術語。

④ 《文通》一般依據意義和功能劃分字類。可是另一方面又試圖找出像印歐語那樣的字類形態作為劃分字類的標準。終於找出了可以對應于印歐語副詞形態標識的“聯綿字、重言、後綴”等形態，進一步認為具有這些形態的字在意義性質方面都是“象形肖聲者”，因此把它們歸類為“狀字”，而沒考慮它們內在功能的不同。《文通》中還有依據主觀意義劃分字類的情況。例如，認為“猶、如、若”強調“類似比較”的時候，分析為“狀字”，認為“猶、如、若”強調“相同比較”的時候，分析為“同動字”。這種分析反映出《文通》字類劃分標準的非一貫性，因此“狀字”包括了一些靜字。還有，對“趨時若猛獸驚鳥之發”裏的“若”字，在〈狀字章〉分析為“狀字”，在〈句讀章〉分析為“同動字”。

⑤ 《文通》依據“狀詞=狀字”這樣的對應說，把充任“狀詞”的，不管它本來是什麼字類、什麼語法單位，都叫作“狀字”。這樣，《文通》的“狀字”這一名稱具有兩種不同的用法，既是字類，又是句子成分。因而《文通》的狀字包括了充任狀詞的名字、介字、滋靜字等。

주제어 : 狀字定義, 狀字假借, 狀字諸式, 狀字收字